

“경제 바보 정부... 생산·소비·투자·수출·재정 모두 빨간불”

민주 원내대책회의...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 비판 전면 경제 개각 촉구... 민생 행보 집중하며 ‘대안 정당’ 부각

더불어민주당은 8일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대상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라며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성장률은 역대 최저, 생산·소비·투자·수출·재정·부채에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 강등, 한국만 나 홀로 하락”이라며 “경제성적이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진다고 ‘상저하고’라고 하지만, 여론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다”라며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 정책의 기초부터 전환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증권사 사장 출신인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올해 외환위기 이후 생활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며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들어 봤느냐. 저도 못 들어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민생이 흔들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시민의 편에서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세수 결손에 대해 정부는 무대책, 주먹구구식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며 “여대급 세수 결손의 대책이 무엇이나. 무대책이 상책

이나”고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비상한 경제 상황에는 정부의 재정 운용이 특히 중요하데, 현재 정부는 별다른 계획이 없어 보인다”며 “필요한 곳에 다 지출하면서 초유의 결손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나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 무능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 이슈를 적극 발굴하며 ‘유능한 대안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정책 과제 모색을 위해 ‘민생채움단’을 발족시켰다. 민생채움단은 앞서 오승 지자라도 참사 유가족 간담

회,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 교관집해 간담회 등 민생 관련 현장 행보를 이어왔다. 이날 오후에는 경기 광명자영업 지원센터를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찾아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모르는 현장의 목소리나 생각 하지 못했던 어려움, 대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日 오염수 배출 저지 총력 다할 때”

민주당 간담회... 우원식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핵 오염수 배출 저지에 대해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만큼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재대를 사는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핵 오염수 배출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며 “정치권이 부족함을 많이 각성해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막무가내로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을 잘 막지 못하는 우리 정부를 보면 답답하다”며 “일본 정부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강변해도 국민 우려를 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30년, 50년간 계속돼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절대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끝까지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해양 방류)를 논의한다는 뉴스를 들었다. 정상회담 이후에 방류를 결정한다는 소식”이라며 “민주당은 시민사회, 다른 정당과 손잡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엄격해진 남북교류 위반 제재 어기면 최장 1년 대북접촉 차단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의 접촉 금지 수위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태료 부과 사유에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각종 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이나 협력사업 승인에 달린 조건 중 결과보고서 제출 항목이 있는데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관리가 잘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을 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동관 청문회’ 일정 줄다리기

방통위원장 후보... 여 16일 vs 야 21일 ‘팽팽’

여야가 이동관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이 끝나는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오는 21일 이후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등을 협의 중이지만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방통위 운영을 위해 조속히 다음주 이후 보좌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

사청문회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오는 16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통위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청문회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23일 다른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 혼자 남는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인 체제로는 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반면 민주당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1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자녀 학폭 의혹과 언론 탄압 의혹’ 등을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광주지역 법안가결 1위 국회의원 선정

법률소비자연맹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은 8일 법률소비자연맹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조사 분석’ 발표에서 광주지역 법안가결 1위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개원 후 3년 간 전체 발의법안 2만94건을 분석해 지역별 법안가결 1위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이 기간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8건, 대안가결 19건 등 총 33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광주지역 법안가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 등원 1년 만에 총선 공약이었던 ‘아시아문화 중심도시특별법’과 ‘소상공인보호법’ 취입 후 학

자금 상환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행정고시 출신인 이 의원은 또 행정 경험과 문화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 개원 후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되는 등 입법·의정활동 역량을 인정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큰 힘이 돼 입법정책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면서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